



■ [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]

참여 작가 소개

마이크 타이카 (Mike Tyka)

1982년 생. 독일 출생, 시애틀에서 활동.

마이크 타이카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생화학 및 생명공학을 전공한 후 워싱턴 대학에서 단백질 분자의 구조와 다이내믹을 연구해왔다. 2009년 타이카와 미술가 그룹이 팀을 이루어 그루빅의 큐브(Groovik's Cube)라고 하는 35피트 높이의 기능적이면서 다용도로 활용되는 루빅 큐브 조각을 만들었다. 그 후로 타이카는 단백질 분자나 DNA와 같은 다양한 생물 분자 형태의 금속, 유리 조각들을 제작해오고 있다. 최근에는 딥 드림 외 생성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적인 작업과 동적인 작업을 통해 인공 신경 네트워크의 창조적인 가능성과 함의를 탐구하고 있다.

■ 작품 소개

<우리, 그리고 그들> 2018, 프린터, 생성적 적대 신경망(GAN), 의자, 250 x 250 x 500 cm,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

Us and Them, 2018. Printers, Generative Neural Networks, chairs. 250 x 250 x 500 cm.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

<우리, 그리고 그들>은 초기작 <비현실 초상화>를 신경망 텍스트 생성 및 키네틱 조각과 결합한 다중 모드(multi-modal) 인스톨레이션이다. 이 작업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봇(bot: 챗봇, 트윗봇 같은)로 판명된 계정에 최근에 올라온 20만 개의 트윗을 기초로 한 것이다. 이 트위터 계정들은 <비현실 초상화>에서 보여진 상상 속 인물들의 계정이며, AI에 의해서 생성되는 정치적 트윗을 기계-학습으로 작동되는 20개의 프린터를 통해 끊임없이 분출해낸다. 커튼처럼 아래로 흘러내리는 프린터의 종기와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두 개의 의자가 중앙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, 이를 둘러싸고 기계-생성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대화와 관계적 연결이 만들어진다. <우리, 그리고 그들>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둘러싼 기계와의 관계를 다시금 면밀히 살펴보고 상호간의 진정한 관계를 모색하도록 한다.